

[핀란드 동료검토(peer review) 회의]

I. 회의개요

핀란드 동료 검토 회의가 2012년 9월 26일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됨.

II. 주요내용

- 2008년 동료검토 이후 핀란드의 ODA 규모는 증가해 왔으며, 2010년 GNI 대비 규모가 0.55%로서 EU 중간목표치인 0.51%를 상회하였으나, 향후 2013, 2014년에는 정체되다가, 2015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 핀란드는 그동안 실용적이고, 유연한 업무방식으로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, 개발프로그램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운영방식은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, 명확한 액션플랜과 목표 등을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.
- 핀란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 협력, 대화를 중시하는 개방성, 여타 공여국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 등이 강점인 반면, 세부적인 원조 및 비중점협력국 원조가 늘고 있어 이러한 원조 파편화 경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.

III. 관찰 및 평가

- 금번 동료검토회의에서는 덴마크를 위시한 주변 노르딕 국가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핀란드가 선진적인 개발원조 정책 및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- 한편, 동료검토팀은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정책 이행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이고,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, 원조파편화 경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긍정 평가와 권고사항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으로 관찰됨.
- 핀란드의 부처간 정책일관성(PCD) 유지 및 시민사회단체(CSO) 협력 강화 등은 best practice로서 배울 점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* 참고사항

- OECD / DAC 동료검토(peer review) 설명 및 진행 절차
 - OECD/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 4년에서 5년에 한번 점검하며, 1년에 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함.
 - 동료검토는 개발협력 정책과 체계의 질과 효과성 제고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함.
 - 동료검토는 DAC 회원국이 목적에 맞는 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 제시
 - 동료검토는 개발협력 기관, 정책 및 시행 전반에 대한 성과를 검토 및 평가.
 - 동료검토는 다섯 단계로 나뉘 진행됨.
 - 1) 준비 및 계획 단계 : 검토국가(examiner) 및 검토 팀을 조직하고 검토 대상 국가는 실사단 방문 한달 전 국가 원조 체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(memorandum) 제출
 - 2) 실정 조사(fact-finding), 분석, 보고서 작성 : 검토대상국 방문, 현장 견학 및 기관 방문을 토대로 동료 검토 회의의 기초가 되는 기초보고서(draft report) 작성
 - 3) 동료 검토 회의: 검토 팀 분석 자료 검토 및 권고사항 확인
 - 4) 승인 및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
 - 5) 후속 조치: 동료검토 1년 반~2년 후 검토 대상 국가를 방문하여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
 - 핀란드는 동료검토를 위해 2012년 3월 보고서(memorandum)를 제출하였고, 9월 26일 동료평가 회의를 통해 동료평가 보고서를 11월6일에 출간하였음.
 - 한국 동료검토의 경우 2012년 6월 11일부터 5일간 동료검토 팀이 한국을 방문하여 실사를 벌였으며 12월 5일 동료평가 회의를 가질 예정임.